걸그룹 탈퇴-명인 변신중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제3000호 www.metroseoul.co.kr

엇갈린 안방 판도 뒤집힐까?

6·25 전사자에게 태극기를 6·25전쟁 6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진명산 6·25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유해발굴단과 함께 전사자 유해 위에 태극기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산은, 동부패키지 개별 매각키로

포스코 인수 포기로 당진발전 이달 내 공개 입찰
동부제철·채권단 자율협약… '화재' 경영권 주목

동부그룹이 제2의 동양·STX그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인 동부 패키지(동부인천스틸+동부발전당진) 인수를 검토해온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워크아웃 전 단계인 자율협약에 돌입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최후의 통첩 카드를 꺼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룹 캐시카우인 동부화재까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희경 산은 수석부행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동부패키지 인수포기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재무적 부담에 비해 향후 사업성이나 그룹 전체에 미치는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류 부행장은 "매각주관사인 산은은 동부패키지를 개별매각으로 전환한 뒤 곧 당진발전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제철 인천공장 중국에 매각될 수도

산은은 당진발전에 대해 6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개시하고 제철 인천공장은 잠재 매수자가 없어 추후 추진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철 인천공장은 결국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동부그룹은 지난해 11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 동부익스프레스, 동부발전당진, 동부제철 인천공장, 당진항만 등을 매각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제3자 매각이 완료된 것은 동부익스프레스(3900억원)가 유일하다. 이外에 동부특수강(1100억원)과 당진항만(1500억원)을 산은 PE(사모투자펀드)로 매각했으나 이는 파킹딜에 불과해 재매각을 해야 한다.

◆동부화재 경영권 주목

이와 함께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자율협약'은 재무구조개선약정보다 높은 수위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이 유예되거나 긴급 자금을 지원받고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동부와 채권단은 김준기 회장의 사재출연 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 이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 측은 김 회장이 동부화재 지분 매각 등으로 마련한 사재 1000억원 중 500억원을 특수목적법인인 동부인베스트먼트(DBI)에 지원하겠다고 산업은행 측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상의 사재출연 용처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동부인베스트먼트는 김 회장의 개인 지분이 100%인 회사라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김 회장 일가의 동부화재 경영권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동부그룹 주가 일제히 하락

이날 동부제철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2085원에 마감했다. 동부라이텍과 동부건설, 동부하이텍 주가도 각각 14.7%, 14.9% 13.9%다 떨어져 하한가를 기록했다. 동부비치와 동부증권, 동부CNI 역시 각각 4.9%, 4.6%, 14.99%로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신용평가도 동부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동부메탈과 동부CNI 신용등급은 각각 BBB에서 'BBB-'로 한 단계씩 끌어지며 '하향검토' 대상에 등록됐다. 동부건설의 신용등급은 'BBB-'선이다.

/채현기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고

메트로신문 지령 3000호 기념 독자 大이벤트

총 300명에게 다채로운 [illegible] 1300만원 상당

메트로신문이 6월 25일 지령 3000호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31일 한·일 월드컵이 개막됐던 날 국내 최초의 무료 종합일간지로 출발한 메트로신문은 지난 13년간 독자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언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메트로신문사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령 3000호 발행기념 독자 퀴즈 大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총 300분께 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퀴즈 문제 2014년 6월 25일 지령 3000호를 맞이한 메트로신문의 창간일은 언제일까요?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방법
1.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서 응모
2. 메트로신문 페이스북(www.facebook.com/metroseoulnews)에 "좋아요" 누르기

▲응모기간 2014년 6월 25일(수)~7월 1일(화)까지 1주일간

▲당첨 발표 2014년 7월 3일(목)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등)

▲상품 한국후지필름 와나소닉코리아(디지털 카메라 각 1대), 더케이호텔 뷔페이용권(2매 10명), LG생활과학 리뷰(트리플에어 50명), 손동켜안(로즈미콘트 오 30명), 풀무원(아세릭스 10개入 5명), KFC(5만원 상품권 17명), 월드비빔면 20개入x2세트 10명), 삼광글라스(글라스락 정사각 5종 세트 20명), 동후디스(단호박 마차 세트 20명), 풀무원(나또 2호세트 5명), 한국도자기(에코미그세트 2개入 10명), 락앤락(비스프리 아이리브 석커 중형[illegible] 50명), 탐앤탐스(허니버터브레드+아메리카노 2잔 세트 모바일쿠폰 50명)

▲수령방법 당첨자 발표시 안내

metro

청와대 검증시스템 개선해야

기자 수첩
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후보까지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연속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의 일환으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물갈이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도 최악이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민정수석실이 총리,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게 200개 항목에 달하는 '사전 질문서'에 답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재산형성 과정, 병역, 납세, 논문, 위장 전입 등 인사청문회에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을 걸러낸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퇴직 후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으로 낙마했고, 문 후보자는 역사관이나 이념적인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이념이나 국가관, 주변 평판 등 검증 과정을 다양하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과 몇몇 수석비서관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현재의 인사위원회 시스템으로는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에 참여하는 인력을 늘리거나, 사전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 언론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외부 기관을 통해 지명 전 면밀히 사전 검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또 인사 검증 책임자를 문책할 필요도 있다. 이번 인사 추천과 검증을 책임졌던 사람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평화를 기원하며 24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및 1000차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회원들이 평화의 바람이 퍼져 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바람개비를 달고 있다. /연합뉴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창극 논란' 14일만에 끝

어제 사퇴 국정 공백 불가피 … 부총리 등 8명 청문안 국회 제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후보자 직을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입장을 연 뒤 기자회견 말미에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다"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총리로 지명된지 14일 만이다.

문 후보자는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자기 해명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썼다.

그는 "민주주의의 신봉자다"며 "법을 지켜야할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청문회를 부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한 정치권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보도가 아닌 진실보도"라며 자신에 비판을 가한 언론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신앙의 자유도 언급하며 교회 강연에서 한 말이 논란거리가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했다.

자진사퇴로 문 후보자를 둘러싼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쇄 낙마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후 국정을 수습하려던 박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60일 가까이 이어진 총리 부재가 더욱 장기화하게 됐다.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총 8명의 부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일괄 진수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업체 대폭 확대

3960곳→1만3466곳

퇴직 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할 수 없는 민간 업체가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24일 안전행정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은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취업 제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기준은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1만3466곳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뉴스&뉴스

'아프간 지방재건팀' 임무 종료

●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 파견한 지방재건팀(PRT) 임무가 약 4년 만에 공식 종료됐다.

정부는 23일 오후(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의 바그람 기지에서 임무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PRT의 임무가 종료되면서 PRT를 보호하기 위해 파병된 오쉬노부대의 임무도 끝났다.

오세훈 페루서 귀국 … 재보선 차출론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개월 간의 페루 일정을 마치고 지난 휴일 귀국한 것이 알려지면서 7·30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오 전 시장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22일 귀국해 현지 자문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재보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불구자 등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손질

●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가진 법률 용어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북,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동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6개월 만인 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의 반응이 없어 공동위 개최를 못 했는데 어제 북한이 동의해왔다"며 "26일 제의해와 오늘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남북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재가동 합의 과정에서 출범했다.

남북은 분기에 한 번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그 동안 우리측의 지속적인 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인터넷 설치,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방안 등 각종 현안을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침착하게 2014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창덕여자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휘관 관심병사 등급변경 못한다

국방부 "전문심사관 심의 거치도록 변경 계획"

군 관계자는 24일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 임의대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전문심사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심병사 등급 변경 심의를 위한 전문상담관을 조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애초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확보하려 했던 계획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 인성검사 평가서를 이용해 식별한 관심병사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후 탈영, 대치 끝에 생포된 임모 병장은 신병교육대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지휘관 판단에 의해 GOP 투입 직전 B급으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현재 전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7000여명으로 전체 병사의 3.8%로 추산하고 있다. /김학순기자

"총기난사 이유는 없었다"

임 병장 메모 내용 유가족에 사과 ·· 수술후 대화도 가능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이 자살시도 직전 작성한 메모에서 자기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임 병장의 메모는)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며 "범행 동기를 입증할 만한 단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병장의 메모에 소초원에 대한 불만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자살 시도 직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콘도 500m 서쪽에서 군 병력과 대치 중일 때 종이와 펜을 달라고 요구한 뒤 A4 용지 3분의1 분량의 메모를 남겼다.

김 대변인은 "어제 오후 6시5분부터 오후 8시45분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약 3㎝ 상당의 총상에 따른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으로 수면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병장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억 강릉아산병원 부원장은 "수술 후 현재 중환자실로 이송돼 회복 중"이라며 "현재 환자 상태가 양호하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로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수술 후 임 병장의 상태가 상당히 안정됨에 따라 2차 수술 계획은 없다"며 "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로 조만간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이 스스로 쏜 총알은 왼쪽 가슴 위쪽에서 어깨 뒤쪽을 관통했다. 폐를 관통하지는 않았지만 총알이 회전하면서 폐 일부가 조각나 출혈이 발생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현재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임 병장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회복되면 진행할 계획이다.

/정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16일 만에 시신 1구 수습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70일째인 24일 오전 단원고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실종자 시신 1구를 수습했다. 단원고 남학생 시신이 발견된 이후 수색에 난항을 겪은지 16일 만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1시3분께 세월호 4층 중앙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실종자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실종자 가족은 발견된 여성의 옷차림으로 미뤄봤아 단원고 2학년 2반 윤모양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DNA 분석 등을 진행해 희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월호 침시 희생자 수는 293명, 남은 실종자 수는 11명이다. /윤다혜기자 ydh@

5대중 1대 자동차세 체납

서울시 등록 자동차 5대 중 1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시 등록 차량은 총 299만6000대로 이중 58만2000대(19.4%)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내지 않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총 체납 건수는 242만7000건이었고, 체납 세금 총액은 3469억원이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26만4000대, 2회는 7만8000대, 3회는 4만4000대, 4회는 3만4000대, 5회는 3만1000대, 6회 이상은 13만2000대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자동차세 징수율은 지방세 중 두번째로 낮았다. 취득세(99.2%)와 지역자원시설세(98.0%), 재산세(97.6%), 지방교육세(97.5%), 지방소득세(95.2%)는 징수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은 91.2%에 그쳤다. 주민세가 82.1%로 가장 낮았다. /H정운기자

성신여대 '제1회 홈커밍데이'

성신여대는 학군단(ROTC) 출신 첫 임관장교(학군 52기)들이 최근 모교를 찾아 '제1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관 장교들은 동기회를 통해 모은 장학금을 학군 53·54기 후배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한세대, 중기-IBK와 MOU

한세대는 최근 19개 중소기업·IBK기업은행과 지역 맞춤형 인재 취업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세대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산학협력 확대 ▲기업은행의 한세대 인재채용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마트 생·선식 대장균 '우글'

소비자원, 롯데·신세계·AK百·롯데마트 등 검출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으며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생식과 선식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식중독균과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유통 중인 생식과 선식 각 15개씩 총 30개 제품의 위생도를 시험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치의 적게는 1.2배에서 크게는 20배 이상의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발견됐으며 3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식품을 부패 변질시키고, 구토형 식중독 또는 설사형 식중독을 일으킨다.

식품위생법상 생식과 선식은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g당 1000마리 이하로,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비자원의 검사에선 선식은 15개 중 6개 제품이, 생식은 15개 중 5개 제품이 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업체의 위생관념 부족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판매 유통별로는 생식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제품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 판매 제품은 11개 중 5개 제품(45.5%)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선식은 온라인 판매 제품(7개 중 2개 부적합)에 비해 오프라인 매장(백화점·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판매하는 제품(8개 중 4개)의 위생상태가 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곳은 롯데백화점(분당점)·롯데마트(수지점)·신세계백화점(경기점)·AK백화점(분당점) 등 4개 매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여름철을 맞아 매장 식품 위생관리를 벌인다고 홍보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선식처럼 소비자가 구매 후 비교적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는 식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철기자 pmsl@metroseoul.co.kr

희망 담은 메시지 24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조류사박과 함께하는 희망 와락 캠페인에서 아이들이 직접 쓴 희망의 메시지를 나무에 달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체납) 관련 Q&A

h well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

Q1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급여제한 이란?

A 2014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이민출국 국가유공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와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Q2 보험료 체납 우선급여제한대상자는?

A 보험료를 6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자인 사람 중에서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재산이 20억원 이상 세대와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 약 2000명이 우선급여제한대상자입니다.

Q3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국에 소재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다혜기자 ydh@

'행복 나눔 자장면데이' 행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주민센터는 26일 오전 '행복 나눔 자장면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망우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망우3동분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日 기업인 구로구청 견학

일본 고베 경제 동우회가 선진 IT 행정을 배우기 위해 지난 20일 구로구청을 방문했다. 고베 경제 동우회는 일본의 기업인들로 구성, 국내·외 경제 단체와 교류 협력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일본 3대 경제 단체다.

'공원안전 보안관' 운영

서울시 중구는 주민들이 심야에도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7월부터 중부경찰서와 함께 '공원안전 보안관'을 운영한다. 보안관은 매일 4명씩 2개조 편성, 오후 7시~11시 관내 37곳 공원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다음달 새 정부 구성하라"

미국, 이라크 압박… 케리 국무 "말리키 총리 약속 받았다"

미국이 이라크 측에 다음달 새 정부를 구성하라고 압박, 이라크 사태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바그다드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새 정부 구성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누리 알 말리키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

케리 장관은 "말리키 총리가 의회가 소집되는 7월 1일까지 새 정부 구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라크에서 수니파 무장 세력을 몰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나 다음 달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라크를 통합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맞서도록 하는 이라크 지도자의 능력이 이라크의 미래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23일(현지시간) 이라크를 전격 방문, 바그다드에서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는 헌법에 따라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출된 이라크 국회의원을 다음 달 1일까지 소집해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회가 소집되면 30일 안에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된 대통령은 15일 안에 총리를 임명한다.

케리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종파적 이해 관계를 초월한 통합 정부를 강조하며 말리키 총리의 3선 연임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리키 총리가 지난 8년간 수니파와 쿠르드족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필리핀 '물벼락' 축제 2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성 세례 요한의 날'을 기념해 주민들이 물을 맞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세례를 의미하는 뜻으로 서로에게 물을 끼얹는 '물 축제'를 벌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어이(yo)" 한마디로 커뮤니케이션

어이(Yo)라는 한 단어로 채팅하는 초간단 애플리케이션(앱)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 앱은 출시 두 달 반 만에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앱 순위 5위다.

이 앱에서 다른 단어나 이모티콘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얼핏 불편해 보이지만 '단순함'이라는 특별한 무기로 이용자들을 매료시켰다.

이스라엘의 앱 개발자 오르 아르벨은 손쉽게 아내와 직원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직장상사의 요청으로 8시간 만에 앱을 만들었다. 4월 1일에 출시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앱을 만우절 장난거리로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1달 만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만 이용자가 2만 명을 돌파했고, 곧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됐다.

이 앱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친구끼리 맥락에 따라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편하게 친구를 부를 때 쓰는 "어이"를 맥락에 따라 "이제 잘 거야" "나한테 전화해 줄래?" 등의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 IT 블로거인 로버트 스코블은 이 앱을 '내 평생에 가장 멍청하고 중독성 있는 앱'이라고 평가했다.

/조선미기자

promesa de arrojarse del barco

바다에 '풍덩' 무모한 도전

metro Mexico

만용 부린 남성 사망

승객이 바다에 뛰어들면 거대한 크루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배의 운항을 멈출까. 이 사소한 호기심이 한 멕시코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을 낳았다.

비극의 주인공은 호르헤 로페즈(29). 그는 지난 18일 브라질 해상을 지나는 크루즈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다. 크루즈의 목적지는 포르탈레사로, 그는 이곳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멕시코 축구 대표팀의 3차전 경기를 응원할 예정이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로페즈는 바다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선상에서 떠들고 다녔다.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용기'를 과시했다는 것이다. 한 목격자는 그가 배에 함께 있던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무모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가 일어나자 배는 즉각 운항을 중지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로페즈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 해군 당국은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크루즈 관계자들은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몽블랑 상공 스카이다이빙

metro France

프랑스에서 두 청년이 이색 스카이다이빙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뱅스 레펫와 프레드 푸정은 지난 7년간 국제 스카이다이빙 대회에 함께 참가한 듀오다. 이들은 매번 높은 상공에서 한계를 넘는 스카이다이빙을 선보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월엔 두바이의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칼리파에서 뛰어내렸고, 5월 저열엔 몽블랑에서 1만m 떨어진 하늘 위를 날았다. 왜 몽블랑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둘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뱅스는 "몽블랑 프로젝트는 준비기간만 1년 반이 걸렸다. 고도가 워낙 높아 허가를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1만m는 비행기가 운행하는 고도와 같다. 제네바 공항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은 이들은 관제탑의 신호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했다. 고도가 높아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뛰어내렸지만 내려오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40초에 불과했다. 프레드는 "낙하산을 6000m 정도에서 펼치려 계획했는데 출발 고도가 너무 높았고 해가 떠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펼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플로랑스 삼트로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미셸 "백악관 떠난 뒤 정계 입문 안해"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사진) 여사가 정계에 입문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셸 여사는 2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미셸 여사가 오는 2017년 상원 의원 도전을 숙고하고 있다는 세간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은 백악관을 나온 뒤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2001년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09년에는 국무부 장관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미셸 여사가 클린턴 전 장관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셸 여사는 자신의 정치 행보 가능성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머지않아 탄생해야 한다. 미국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겐 몇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1994.35 (+18.48)
코스닥 529.49 (-0.47)
금리 2.69 (-0.01)
환율 1017.50 (-2.00)

뉴스&뉴스

캐리어 위에 앉으세요 쌤소나이트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쌤소나이트에서 의자처럼 앉아 쓸 수 있는 캐리어 파시필로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송파 3억 이상 전세 많아

● 수도권에서 3억 원 이상 전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340만490가구 중 전셋값이 3억원 이상인 세대는 67만1094가구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 송파구에만 7만3327가구가 집중됐다.

송파구는 지난 2006년 12월 레이크팰리스(2678가구)를 시작으로 2007년 8월 트리지움(3696가구), 2008년 7월 리센츠(5563가구), 2008년 8월 파크리오(6864가구), 2008년 9월 엘스(5678가구) 등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이뤄지며 고가 전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박선옥기자

ETF 7종목 관리지정 우려

● 한국거래소는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7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는 다음 달 1일 소규모 저유동성 ETF에 대한 첫 관리종목 지정을 앞두고 투자자의 안내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대상 가운데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삼성대만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 등 5종목은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점이 사유가 됐다.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 등 2종목은 하루 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으로 관리대상에 지정됐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한호
광고문의 (02)721-9851~9
독자센터 (02)721-9878
2002년 1월 24일 창간 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00209

애물단지 저축은행이 보물단지로…

현대·대신·키움증권 인수 후 흑자전환 안정 궤도

최근 증권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인수했던 곳은 보저령 시너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탁론(주식담보대출) 등 저축은행의 새 먹거리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저축은행과 키움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저축은행도 부실을 털어내고 실적 안정 궤도에 올랐다.

현대증권은 전날 현대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5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으로 인수되기 이전에 아파트 담보대출로 발생했던 부실을 털어내고 신용대출 연체 관리 등을 통해 그동안의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저축은행(구 대영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현대증권에 인수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잠재부실 리스크가 매우 컸다.

현대증권에 인수된 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해 지난해 말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3년 연속 적자에 따른 단독 검사를 받기도 했다.

예보는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인 저축은행은 단독 조사할 수 있다. 당시 예보는 현대저축은행에 충당금을 더 쌓을 것을 지도했다.

이제천 현대저축은행 행장은 "지난 5월 말 BIS 비율은 15.6%로 금융당국의 우량 저축은행 기준(8%)보다 높다"며 "인수 이전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모두 쌓고도 흑자 구조로 돌아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이 2011년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의 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대신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실적 개선세로 돌아섰다. 대신증권은 저축은행 등 자회사들의 수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했다.

키움저축은행(구 삼신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초 키움증권에 인수된 직후엔 부실채권을 털어내느라 95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듬해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비중이 과거 1%에서 11%까지 늘어나는 등 저축은행 심사와 리스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의 새 먹거리 중 하나인 스탁론 등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공여(융자·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스탁론으로 쏠리고 있다.

스탁론의 성장세는 저축은행의 실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담보로 잡은 주식 가치의 급락시 마땅한 안전 장치가 없는 점이 문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스탁론이 증권사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매입 종목 제한 등의 규제 문턱이 낮아서 자금이 몰리는 측면이 있다"며 "위험자산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인 만큼 통제 기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우리농산물 제철과일 사세요 24일 서울 서초구 농협양재동 하나로클럽 임팩장에서 열린 '값이익는 제철과일' 사음행사에서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선한 제철 과일을 최대 28% 할인된 판매한다. /연합뉴스

속도 내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제동 걸리나?

상가 이어 핵심부지까지 공매 나와 차질 우려

올 초 추진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속도를 내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단지 내 핵심부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로 나와서다. 이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24일 캠코 인터넷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따르면 23~25일 3일간 대치동 1020-1번지 2190㎡ 규모의 은마아파트 일부 부지가 입찰에 부쳐진다. 현재 아파트 17동 일부와 은마자연센터, 주차장, 화단 등으로 이용 중이다. 감정가격은 394억3080만원이다.

해당 부지는 1980년 시용승인 이후에도 최근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것으로 판단, 체납된 세금 회수를 위해 지난 2월 강제로 등기한 뒤 공매를 신청했다.

문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을 경우 아파트 등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추진위가 낙찰자에게 이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실 은마아파트는 이번 공매로 나온 부지 말고도 2006년 상가 내 새마을회관, 지하대피소 등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바 있다. 정 전 회장이 주민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채무 문제로 법원 경매에 나온 것을 W부동산투자회사가 낙찰 받은 것이다.

그나마 상가는 W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분리한 후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도 있다. 그러나 공매되는 부지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실정이다.

인근 E부동산 대표는 "올 들어 겨우 사업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상가에 이어 토지에까지 발목이 잡히게 됐다"고 토로했다.

추진위 측은 아파트 분양과 함께 주민들에게 넘어왔어야 할 땅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일 뿐, 실제 땅의 주인은 입주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 관계자는 "조만간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0309

6월말부터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 의무

앞으로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발급받고 이를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54개의 항목은 크게 5개 분야,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 소방(6개) 등이다. 1~4등급이 있다.

이 중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가변·수리용이성(구조), 생태면적(환경), 사회적 약자의 배려(생활환경), 감지와 경보설비(화재·소방) 등 5가지는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 5가지를 제외한 49가지 항목은 필수 표시 항목은 아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말에 공포될 예정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kdt@

연세·국민대학생 MS오피스365 무료로 쓴다

클라우드 캠퍼스 앞다퉈 도입…활용능력·협업 핵심 경쟁력

연세대·국민대 등 국내 주요 대학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기반의 클라우드 캠퍼스 조성에 나섰다.

이는 주요 기업이 학점, 외국어 시험점수 등 기존의 인재선발 기준에서 벗어나 협업능력, IT 활용능력 등 보다 기업 실무에 가까운 실질적인 능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24일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인 문서 작성 툴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결합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Office365)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오피스 365를 활용한 협업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들끼리 한 자리에 만나지 않아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팀과제를 하는 등 협업이 대학가에 새로운 풍토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연세대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과 소통기반의 학습·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3만 7000여명의 연세대학교 재학생 전원이 오피스365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대학교도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1만 8000여명의 재학생 전원에게 오피스365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렇게 주요 대학이 재학생에게 오피스 365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튜던트 어드밴티지(Student Advantage)와 오피스 365 에듀케이션이 있어서 가능하다. 스튜던트 어드밴티지는 전체 교직원을 위한 오피스 연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 모든 재학생이 설치형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혜택 기반의 교육 분야 프로그램이다. 또 오피스365 에듀케이션은 교직원과 학생 모두 무료로 오피스365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오피스 365 에듀케이션을 도입하면 교직원과 재학생은 메일 일정 주소록 관리를 위한 익스체인지 온라인, 팀사이트·문서관리·협업 등을 위한 셰어포인트 온라인, 메신저·화상회의 등을 위한 링크 온라인, 온라인 상에서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온라인, 클라우드 저장소인 원드라이브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연세대학교는 지난3월 협업과 소통기반의 학습·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오피스 활용과 팀원과의 협업 능력은 단순한 스펙을 넘어서 기업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전교생 대상의 오피스 프로그램 제공은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점차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격론'

이통사-제조사간 이해 관계 엇갈려 팽팽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팽팽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보조금 상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이를 앞두고 현재 4년째 27만원으로 책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재조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아래 고시에서 상한선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같은 논의는 다시 불거졌다.

현재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 이동통신3사에서는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휴대전화 제조사는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수준을 높이면 재정 부담이 커져 이통사는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은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이 과거 3G시절 책정된 만큼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출고가가 4년간 크게 높아진 만큼 보조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 휴대전화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27만원으로 책정된 보조금 상한선을 50만원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조금을 적게 써서 통신사 이익이 증대돼 요금이 인하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며 "보조금의 순환은 제조업계, 유통업계, 소비자에게 순기능을 작용해 이동통신 생태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metroseoul.co.kr

갤럭시 탭S 예약 판매 삼성전자는 24일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S 10.5형 모델의 국내 예약 판매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예약 구매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프리미엄 헤드폰 '삼성 레벨 온'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삼성전자 제공

"같이 게임 만들래? 판교서 캠핑하면서~"

콘진원 '부트캠프 인 판교' 27일 열기로

"게임의 도시 판교에서 캠핑을 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7~29일 성남시 판교 공공지원센터 내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스킬트리랩 부트캠프 in 판교'를 개최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스킬트리랩, 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한정된 장소에서 3일 안에 주어진 주제에 맞도록 게임 혹은 앱을 실행 가능한 시험판 형태로 만들어 내는 이벤트다.

이 캠프는 프로그래머, 기획자, 디자이너 등 참가자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팀을 꾸리고 2박 3일(48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개발에 몰두하는 일종의 '게임 개발 캠핑'이다. 당일 공개되는 미션과 주제에 따라 개발해야 하므로 참가자의 기획력, 의사소통 능력, 위기대처 능력, 팀워크 등이 중요하다.

게임 개발자 및 지망생들은 팀원과의 소통,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게임 기업 평가를 거쳐 개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게임 기업에는 새로운 식탁과 구인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26일 오후 2시까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onoffmix.com/event/28906)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유니티, 레어로코리아, 슈피겐 측에서 준비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며 입상자들은 경기도 콘텐츠 창업 보육 시설인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 심사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박성훈기자 zen@

KT, 동자동 쪽방촌에 IT로 '온기'

'희망나눔센터' 개소식 정보격차 해소 나서

KT는 24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민·관 나눔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동자희망나눔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은 황창규 KT 회장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반려식물을 나눠주는 모습. /KT제공

"직장생활 중 당한 불의의 사고 이후 쪽방촌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받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이제 동자희망나눔센터에서 저와 같은 쪽방촌 주민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 강동근(61)씨.

KT(회장 황창규)는 24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동자희망나눔센터' 개소식을 열고 민·관 나눔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창조경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황창규 KT회장 등 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illegible] 사무총장, 동자동 쪽방촌 주민 등이 참석했다.

황창규 회장은 기념사에서 "동자희망나눔센터가 쪽방촌 주민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나눔·행복·희망'을 키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보격차해소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조성한 '동자희망나눔센터'는 IT카페, IPTV룸과 같은 문화공간과 샤워실, 세탁실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ICT 복합문화공간이다.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의 물질적 지원을 넘어 쪽방촌 주민들이 'IT'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문화를 향유하며 나아가 자활을 꿈꾸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몸을 누울 수 있는 3.3~6.6㎡ 남짓한 작은 쪽방들이 모여있는 쪽방촌은 서울에 [illegible] 고 있다. 특히 동자동 쪽방촌은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로 1000여 명의 주민이 모여사는 도심내 빈곤밀집지역이다.

KT는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illegible] 관 나눔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쪽방촌 입구의 목욕탕 건물을 '동자희망나눔센터'로 새단장했다.

지하 1층을 포함해 총 3층으로 구성된 이 공간은 샤워실·세탁실 [illegible] T카페와 IPTV를 통해 문화시설을 갖췄다. 이런 공간을 활용해 IT교육, 정서·보건 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민·관이 [illegible] 을 극복하고 주민의 온전한 자립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게임 콘트롤러·전용 프린터…

PC 뺨치는 아이템 거느린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컴퓨터 뺨 치는 아이템을 거느리고 있다.

스마트폰 게임은 이제 PC게임의 아성을 위협한다. 스마트폰은 조작 환경 때문에 이기자기한 퍼즐 게임이나 캐릭터 육성의 캐주얼 게임이 주로 출시돼왔다. 최근에는 PC게임 못지 않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의 스마트폰 게임이 유행하더니 스마트폰 콘솔 게임 바람까지 불고 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콘솔 게임용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24일 선보였다. 게임 앱 설치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SK텔레콤은 '로스트플래닛' '레지던트이블' 등 대작 콘솔게임 공개와 함께 게임 전용 데이터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셋톱박스용 조이패드 5종과 모바일용 패드 1종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다음달 23일까지 클라우드 게임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게임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앞서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용 게임패드 'EL-GP20'을 연초 출시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스마트폰 게임 액세서리로 개발한 것이라 화제를 모았다. 로지텍은 아이폰 전용 게임 콘트롤러 '파워쉘'을 선보인 바 있다. 파워쉘은 내장 배터리까지 장착해 게임을 즐기는 중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다만 시중에 나온 스마트폰용 조이패드는 모바일 게임 호환 범위가 넓지 않고 지원되는 운영 체제가 국한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스마트폰 전용 사진 출력기 LG전자 '포켓포토'는 50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근거리 무선 통신방식으로 별도의 선 연결 없이 스마트폰에 가까이 대면 사진이 출력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과 비슷한 크기로 무게는 221g로 가벼운 편이다.

2010년 LG전자 HE사업본부에서 열린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에 포켓포토 아이디어를 출품한 사원에게 1년치 연봉에 달하는 보상금을 주고, 대리로 특별 승진시키기도 했다. 당시 금상을 수상한 당선자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포토 프린터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것에 착안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촬영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소형 프린터를 고안했다.

LG전자는 2011년 하반기에 제품 개발을 시작했고 2012년 포켓포토를 출시한 이래 올봄 포켓포토2까지 선보였다. /정혜인기자 unique@

스마트폰에서 콘솔게임 즐긴다 SK텔레콤은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게임에서 즐길 수 있었던 고품질 비디오게임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클라우드게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SKT 제공

유망종목 실시간 발굴 추천

동양증권 'MY tRadar ETF Wrap'

동양증권은 24일 인공지능 종목 추천 시스템인 '마이 티레이더(MY tRadar)'를 활용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마이 티레이더 ETF 랩(MY tRadar ETF Wrap)'을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양증권 측은 "마이 티레이더는 '성공 주식투자의 3대 요소'로 여겨지는 기술적 지표와 수급, 기업가치를 모두 고려해 유망 종목을 실시간으로 발굴하고 이를 추천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며 "서비스 개시 이후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한 마이 티레이더 ETF 랩은 개별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 흐름을 자체 분석한 뒤 국내 지수추종형 ETF를 토대로 시장 방향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선물지수의 차트 강도에 따라 시장 추세를 파악한다.

시장 상승시에는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고 하락시에는 인버스 ETF를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등락과 관계 없이 두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며 "분할매매 기법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포지션을 빠르게 바꾸기 때문에 손실확률도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KOSPI200 선물 일봉을 기준 지표로 삼아 장기 추세의 신뢰도를 높였다. 매매 수수료 없이 투자자산에 따른 랩 수수료만 징수하므로 잦은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주원 동양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주식투자를 하고 싶으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투자를 꺼려했다면 티레이더의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을 이용한 이번 상품이 적절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품 가입 시 고객은 목표전환수익률 5%, 7%, 9%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RP로 100% 전환된다.

최소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랩 수수료는 가입과 추가 납입 시 1.2% 선취하고, 분기별 0.3% 후취한다.

별도의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 인출금도 가능하다.

가입은 동양증권 전국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260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메트로신문 3000걸음 언론 역사 바꿨다

타블로이드·중철제본·앱 출시 트렌드 이끌어 열독률 8위 · 대학생 선호매체 부동의 1위

한국 언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메트로신문이 드디어 3000번째 걸음을 내딛었다.

2002년 5월 31일 한일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역사적인 지령 첫호를 내보낸 지 12년 2개월만이다. 메트로신문의 이같은 성과는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한국 언론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트로신문은 창간부터 국내 언론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화제를 몰고 다녔다. 그동안 국내 일간지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타블로이드 판형을 과감히 도입해 지하철 풍경을 활기차게 바꿨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 신문 중철제본(Stitching) 실시, 2006년 독일월드컵기간 중 스포츠 섹션 특별판형(플립커버) 편집제작, 2008년 신문로 신사옥 이전, 2010년 무료일간지 최초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출시 등 국내 언론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

◆세계 최대 다국적 무료일간지

콘텐츠도 다른 유력 일간지 못지않게 알차다.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각종 현안을 심층진단하는 '이슈진단'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복지를 자랑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알짜기업 탐방' ▲각종 IT기기를 사용하고 장단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꼼꼼IT리뷰' ▲자동차 기자가 직접 시승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평점과 한줄 평가를 통해 독자들에게 꼼꼼하게 소개하는 '임의택의 車車車' ▲기자가 주부들을 위해 실생활 속 돈새는 재테크를 소개하는 '짠순이 주부 경제학' 등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세계 최대 다국적 무료종합일간지라는 장점도 갈수록 빛나고 있다. 올해초 미국 뉴욕·보스턴, 캐나다 토론토, 프랑스 파리, 브라질 브라질리아, 칠레 산티아고, 중국 홍콩, 스웨덴 스톡홀름 등의 2000여명 메트로신문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살아있는 뉴스를 공유하는 리드메트로(www.readmetro.com/en)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오늘 아침 메트로서울에서 본 뉴스를 뉴욕·런던·파리·산티아고에서 바로 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글로벌메트로'는 다른 신문에서는 보기 힘든 생생한 국제뉴스를 볼 수 있어 마니아층이 생겼을 정도다.

◆지하철 출퇴근자 열독률 빅3

올해 창간 12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한 메트로신문은 변화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우선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정보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특별판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프로야구 개막일에는 잠실·부산·대구 등 전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특별판'을 배포했다. [illegible] 캠퍼스, 가정의 달, 부산국제모터쇼 등의 특별판을 펴냈다.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특별판으로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독자들은 높은 열독점유율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메트로신문은 2.3%의 열독점유율로 전국 70개 종합지 중 당당히 8위를 차지했다. 서울·경기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철 배포만으로 이 같은 성적을 올렸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열독점유율 조사를 지하철 출퇴근자로 한정할 경우 메트로신문은 빅3로 수직상승한다.

◆2004년 이후 대학생 선호 1위

젊은 독자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한국대학신문이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언론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메트로신문은 37.3%의 선호도로 2004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끊임없는 변화와 초심을 잃지 않는 메트로신문의 발걸음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온라인에서도 강자 자리매김

홈페이지·모바일 페이지 개편 — 독자 편의 강화

메트로신문은 오프라인 신문의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온라인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10년 무료일간지 최초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발빠른 행보를 보인 메트로신문은 최근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페이지(m.metroseoul.co.kr)를 개선하는 등 독자 편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4월 1차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용자환경(UI) 개선에 나선데 이어 올해 1월 1일을 기해 '제2의 창간'이라는 기치아래 2차 홈페이지 개편과 웹콘텐츠관리시스템(WCMS)도 자체 기술로 구축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였다. 이 같은 고민을 통해 탄생한 것이 뉴스·경제·국제·라이프·오피니언·스포츠·연예 등 각 섹션별 주요 기사를 레이어 메뉴를 통해 한 눈에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각 섹션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각 섹션 별 주요 뉴스를 볼 수 있다.

이제 메트로신문 독자는 스크롤을 내려 훑어보지 않아도 실시간 주요 이슈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홈페이지 상단에 중요 기사와 함께 '핫이슈' 코너를 배치해 여론을 주도한다. 핫이슈는 최근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2014 브라질월드컵 ▲검찰의 유병언 수사 활동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출범 등 [illegible] 사회적 중요 이슈를 하나로 묶어 독자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반응하는 와이드형 페이지를 구현한 점도 특징이다.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스페셜기획 코너를 펼쳐볼 수도 있고, 이를 홈페이지 하단에 몰아서 볼 수도 있다. 스페셜기획 코너에는 IT카페 '인포그래픽', '꼼꼼IT리뷰', '시승기', '짠순이 주부경제학', '임의택의 [illegible]', '글로벌 이코노미', '맛있는 레시피' 등 메트로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기획 코너는 새로운 기사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해당 기획이 최상단에 배치돼 독자들이 최신 기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사와 이미지 콘텐츠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WCMS도 자체 기술로 구축했다. 그동안 기사 작성과 편집,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WCMS를 외주 업체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1월 1일을 기해 자체 기술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를 이용하는 독자의 불편사항 등을 접수 즉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홈페이지 개편 등에도 효율성을 갖게 됐다. 앞으로도 메트로신문은 독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온·오프라인 신문 강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세경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이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가려면 어찌나 싫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개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적은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이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때가 바뀌고 세월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어떻게든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에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1 주먹구구식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사진 설명: Lee Season Vista 가연결혼정보 사옥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눈다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자격증 취득 '인생 2막' 설계해볼까

'평생 현역 시대' 현명한 도전법
비용·수요 따지고 사기 조심을

가정주부 최진희(38·가명)씨는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다. 70만원을 들여 교재를 구입한 후 미질 후 자격증을 손에 넣었지만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자격증 따는 과정이 너무 쉬웠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해당 자격증은 국가의 정식인가도 받지 않아 시간과 돈만 낭비했다.

최근 경력이 단절된 주부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은퇴자나 중년층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면서 이같은 사기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버룩시장 구인구직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자격증취득법을 알아본다.

◆국가·민간 자이점부터 알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나뉜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며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주관해 시행된다. 한식조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전문자격증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관한다. 공인중개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이 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가 공인하는 절차에 통과한 국가공인민간자격증과 민간기관이 만든 일반 민간자격증으로 나뉜다. 비슷한 내용의 자격증이라면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용도 꼼꼼히

원하는 분야에 민간자격증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수많은 사설기관 중 어느 곳이 취업에 유리한지, 민간 자격이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발급기관부터 응시 조건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교육과 연계된 민간자격증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이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교육비, 교재비가 있다면 환불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를 참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력 수요도 따져라

자격증은 민간과 국가를 합쳐 4000여종에 달한다. 분야와 종류가 다양한 만큼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인기 자격증에 휩쓸려 선택하다간 자칫 돈 들여 자격증을 따놓고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고 그 분야의 인력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취득한 사람이 많은 자격증은 활용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www.q-net.or.kr)에 접속하면 각종 자격증의 취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100% 취업보장은 주의해야

자격증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광고로 구직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많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100% 취업', '자격증만 있으면 월 300만원 보장' 등의 문구가 있으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정부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대부분이며 당연히 자격증을 따더라도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1석 2조 자격증을 노려라

취미를 살리거나 실생활에 도움도 되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과후지도사자격증, 독서지도사자격증, 벽술자격증 등은 주부 사이에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통한다.

평소 동물이나 식물에 관심이 많은 중년층이라면 생명과학지도사나 반려동물관리사 등도 유용하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

청춘멘토 8명이 전하는 메시지

청년위 멘토링북 '컬러드런치' 무료 발간

나승연, 박칼린, 장미란 등 청춘멘토 8명이 참여한 멘토링북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과 청년위원들이 소통하며 나눈 대화를 담은 멘토링북 '컬러드런치'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청년위원회 홈페이지(pcyg.young.go.kr) 또는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예스24, 영풍문고 등에서 전자북 형태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멘토링북에는 청춘멘토 8명이 청년들과 런치 데이트를 하며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있다.

나승연 청년위원은 "연습량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했던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연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칼린 청년위원은 "대학진학, 대기업 취업과 같이 남들처럼 자신의 진로를 맞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자유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김태원, 박기태, 김윤규, 박상영 청년위원들의 따뜻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멘토링 내용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

남민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은 "청년위원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청년들의 고민을 바라본 만큼 20~30대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조언이 실려 있다"며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눈 대화를 책으로 엮은 '컬러드런치'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구직자 평가도 작년보다 10점 하락

지각·오타 실수 많아

취업난이 심각한데도 지각, 오타 등의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지원자에 대한 평가도 평균 40점으로 2012년 조사(50점)보다 10점이나 낮아졌다.

2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올 상반기 신입사원을 뽑은 기업 인사담당자 363명을 대상으로 '최고·최악의 지원자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유형으로 '입사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지원자'가 3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입사의지가 큰 지원자는 애사심이 깊은 만큼 이탈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무에 대한 비전 등이 확실한 지원자'(22%), '남은 미소와 재치가 있는 지원자'(14.9%), '직무 경험이 풍부한 지원자'(11.6%),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한 지원자'(8%)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지원자의 비율은 올 상반기 22%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사담당자의 31.7%는 '지각, 오타 등 기본도 못 지키는 지원자'를 최악으로 꼽았다. 구직자는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성의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원동기가 불분명한 지원자'(20.9%),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한 지원자'(15.4%), '자신감이 없는 지원자'(9.4%), '마감일 우시 등 절차를 따르지 않는 지원자'(5.5%), '베끼기 등 성의 없이 준비한 지원자'(5.5%) 등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은 올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지원자의 비율이 무려 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중소기업 연봉인상 평균 5.2%

과장급 가장 많이 올라

올해 중소기업 직장인의 연봉은 평균 5.2%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종업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388명을 대상으로 '올해 직급별 연봉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직급별 평균 연봉은 사원급 2365만원, 대리급 3014만원, 과장급 3885만원, 차부장급 478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직급은 과장급으로 176만원(4.7%) 인상됐다. 사원급도 88만원(3.89%) 올랐다. 반면 대리급은 90만원(-2.9%), 차부장급은 214만원(-4.3%) 연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체 응답자 중 '올해 연봉에 만족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6.7%에 그쳤다. 49.7%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국명기자

'쿨' 아이템으로 더위 잊자

섬유 더기운 여름에 아웃도어·뷰티업체들이 쿨링 성능을 강화한 기능성 아이템으로 무더위 잡기에 나섰다.

먼저 아웃도어 업체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냉감·흡습속건 기능의 의류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업체간 자체 개발 소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쿨링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이 눈길을 끈다.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은 올여름 자체 개발한 흡습속건 소재인 '엠셀렉트'를 적용한 제품의 비중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렸다. 머렐 엠셀렉트 집업 티셔츠는 땀과 수분을 즉시 흡수·증발시킬 뿐만 아니라 체감 온도를 낮춘다. 르까프 시루스쿨 티셔츠는 자체 개발한 시루스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더 많은 열을 흡수해 쾌적함을 유지 시켜준다.

아이더 케이네온 쿨라이밍 라운드 티셔츠는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신개념 의류다. 이 제품은 일정의 온도가 오르면 티셔츠 안쪽에 프린트된 아이스 큐브의 색상이 변하면서 수분과 반응, 수분이 마르는 동안 지속적인 냉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쿨링 기능 탑재한 자체 개발 소재 의류 인기

수분 공급·체감 온도 낮추는 화장품 봇물

◆수분 공급·체감 온도 낮추기

뷰티업체들 역시 더위에 지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청량감을 더해주는 쿨링 아이템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CNP차앤박화장품은 열기와 자외선 등 각종 스트레스와 오염물질로 문제가 생긴 피부를 달래주는 'CNP 앵그리 박스' 2종을 한정 판매한다. CNP 앵그리 박스는 낮 동안 성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이박스'와 늦은 밤까지 뿔난 피부를 달래줄 '나이트박스'로 구성됐다.

이니스프리는 피부 온도와 불쾌지수를 낮춰주는 '에코아이스 라인'을 내놨다. '에코아이스 스파클링 에센스 -5℃', '에코아이스 베드 쿨러 -9℃', '에코아이스 바디 쿨링 젤 -9℃' 등 총 3가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건강↑ 칼로리↓ 도시락 한식 도시락 브랜드 '본도시락'은 칼로리는 낮추고 건강지수를 높인 여름철 신메뉴 '전복삼계탕 도시락'과 '삼계 닭가슴살 샐러드'를 출시했다. 몸매 관리에 신경쓰는 여름철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보양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본도시락 제공

체지방 두 번 잡는 '사이즈핏 인&아웃 다이어트'

'돌외잎주정추출분말' 함유…25일 현대홈쇼핑서 첫 판매

LG생명과학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리튠(re tune)이 다이어트 신제품 '사이즈핏 인&아웃 다이어트'를 출시하고 25일 오후 12시40분 현대홈쇼핑에서 첫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제품은 '이유미 다이어트'로 유명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파워 다이어트 사이즈핏'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체지방을 두 번 잡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제품에 함유된 '돌외잎주정추출분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체중과 체지방량, 체질량 지수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 마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체열을 올리고 땀이 나게 해 체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한다. 실제로 이 성분은 지난 1월 비만 학술지 오베시티(Obesity)에 등재돼 다이어트 기능성 소재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회사는 운동 전이나 청소 전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품에는 HCA 성분이 1000㎎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은 음식물 섭취 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포함한 체지방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황재용기자

'나홀로족 맞춤 메뉴' 각광

소포장·간편식 대세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23.9%로 급증했다. 국민의 4분의 1이 싱글족인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음료 업계에서도 나홀로족 소비행태에 발 맞춘 1인가구용 메뉴를 앞 다퉈 선보이고 있다. 먹기 좋게 소분한 소량 개별 포장 제품부터 남비 없이 알뜰살뜰하게 만날 수 있는 소용량 제품, 게다가 언제든지 쉽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편식까지 다양하다.

◆소량 개별 포장 상품 인기

오리고기 브랜드 다향오리는 1인 가구들도 오리고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소비자들을 위한 1㎏, 600g 등의 대용량 제품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합리적인 용량의 소포장 제품을 동시에 선보이고 있다.

다향오리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훈제슬라이스는 1인가구를 위해 600g의 제품을 200g씩 3회에 나눈 패키지 제품과 200g 용량의 단품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한 제품 증가

대상은 '청정원 양념듬뿍 쌈장'을 소용량(65g)으로 선보이며 싱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제품은 고추장과 된장을 적정 비율로 혼합하고 마늘·참깨·양파·대파 등 갖은 양념을 넣어 양념 쌈장을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소용량으로 1인가구에 적합하며 캠핑이나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탄산수 브랜드 페리에는 기존 330㎖ 용량을 250㎖로 줄인 페리에 슬림캔을 선보였다. 이는 한 명이 마시기에 딱 적당한 양으로 탄산수의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간편한 즉석 조리식품 각광

레토르트 '3분요리' 시리즈를 통해 간편식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오뚜기는 '김치제육덮밥', '사천짜장밥', '육개장밥' 등의 세트밥을 추가로 선보이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레인지에서 2분만 조리하면 되고 밥과 소스, 수저가 모두 들어있어 번거로움 없이 바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동원F&B... 풀무원식품은 나물을 씻어 데친 후 양념하고 볶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전자레인지에 4분만 데우면 한끼 식사가 완성되는 간편식 '봄나물밥'을 선보였다. 1인분씩 개별 포장으로 간편함과 편리성을 더했다.

/완원실기자 srrrw@

유가공 연구개발 중앙연구소 준공

서울우유, 안산공장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최근 유가공 관련 종합적인 연구개발기능을 가진 중앙연구소의 신축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 연구소는 1989년부터 안산공장 사무동에 위치하고 있던 유제품 연구개발 조직으로 그 중요성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3월 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약 13개월에 걸친 신축을 완료한 연구소에는 ▲이화학분석실험실 ▲생물학실험실 등의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가 가능한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 고객의 연령대별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관능검사실과 각종 유제품에 적합한 최적의 생산 조건을 연구할 수 있는 파일럿 실험실 등을 마련해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송용헌 조합장은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유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부 팬츠 남성 쿨비즈룩 '인기'

올 여름 판매 급증…보트슈즈·로퍼도 붐티

여름 여성 패션을 대표하는 9부 팬츠가 올여름 남성 쿨비즈룩으로 떠오르고 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은 올 6월 들어 남성 9부 팬츠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건물 내 온도 제한 정책으로 긴 바지를 입기에는 덥고 반바지는 짧은 길이때문에 부담스러워하던 남성들이 9부 팬츠를 찾고 있는 것.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9부 팬츠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줘 멋과 시원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9부 팬츠의 인기와 더불어 함께 페이크삭스(덧신양말)와 로퍼 등의 매칭 아이템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페이크삭스는 80%, 로퍼, 보트 슈즈는 각각 45%, 57% 상승했다. 페이크삭스는 원래 여성들이 플랫슈즈나 단화를 신을 때 양말 대신 신던 것인데 최근 9부 팬츠를 즐겨 입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아이스타일24 측은 분석했다.

아이스타일24 남성 카테고리 담당 전지예 MD는 "9부 팬츠는 기본적으로 발목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원할 뿐만 아니라 밑단을 두세번 더 접으면 분위 캐주얼 또 다른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신혼 집들이 선물 센스있게…

휴지·세제 식상 인테리어 소품 좋아

결혼식이 많았던 5월이 지나니 6월은 신혼부부의 집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요즘 신세대 신혼부부의 집들이 방문 시 휴지나 세제 같은 뻔한 선물을 한다면 센스 없다고 구박받기 일쑤다.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의 알콩달콩한 신혼 집을 위해 아기자기한 소품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는 꽃우너 프린트의 비느질함은 작은 용품들을 한 곳에 정돈할 수 있고 장식 효과도 내는 일석이조 아이템이다. 이와 함께 물방울 우너나 꽃우너 패턴의 쿠션을 함께 선물하는 것도 좋다.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하거나 대화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주방에서 사용할 키친 소품 선물도 눈길을 끌고 있다.

티팟 티컵 세트는 신혼부부가 마주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며 사랑을 속삭이게 하는 제품이다. 쿠키나 케이크를 담을 수 있는 수납함 틴세트도 함께 선물하면 주는 사람의 센스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강석민 캐스 키드슨 홍보팀 대리는 "최근에는 신혼부부들이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실용성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선호하고 있다"며 "앞치마나 냉정 장닌갑의 모양을 한 귀여운 조리용 컵세트 등도 집들이 선물 아이템으로 좋다"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metroseoul.co.kr

더위 날릴 레몬워터 과일 브랜드 썬키스트는 24일 오전 서울 두미디어센터 오픈스튜디오 앞에서 상쾌한 썬키스트 레몬이 더해진 레몬 워터 론칭 행사를 열었다. 이 제품은 풍부한 비타민 C와 구연산을 제공하는 과일로 시원한 물에 더해 섭취하면 더위를 날려줄 상큼함과 지방 연소, 소화 기능 강화, 면역력 증강, 포만감 유지, 노폐물 배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썬키스트 제공

블랙야크 키즈, 남자 어린이 모델 선발

7월 3일까지 블로그 접수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블랙야크 키즈는 모델 하우와 함께 할 남자 어린이 모델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생연도 기준 2004~2010년생 남자 아이로 신장은 100~145cm이어야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프로필사진 1장과 아웃도어 활동사진 1장을 게재한 블로그 게시글 주소와 필수 정보를 블랙야크 블로그 해당 게시글 비밀 댓글에 올리면 된다.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하며, 본선 진출자는 블랙야크 본사 키즈 패션쇼에 참가해 최종 블랙야크 키즈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블랙야크 키즈 모델로 뽑히면 상금 100만원을 받고 하우와 함께 2014 가을·겨울 화보 촬영을 한다.

참가자 외에도 이벤트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블랙야크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영화예매권(1인 2매)을 증정한다.

우주원 블랙야크 마케팅본부 부장은 "가족 단위의 아웃도어 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블랙야크 키즈도 기능과 디자인이 차별화된 아웃도어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일본항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NTT 동일본과 업무 제휴…23일부터 이용 가능

JAPAN AIRLINES

일본항공이 동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이하 NTT 동일본)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지난 23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휴는 방일 수요 창출 및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해외 출발 일본행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항공 해외지역 홈페이지에서 NTT 동일본이 발급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면 된다. /황재용기자

파킨슨병 치료제 '아질렉트' 출시

다음달 1일 시판…55개 국가에서 허가 받아

10년 만에 새로운 파킨슨병 치료제가 나왔다.

한국룬드벡(사장 오필수)은 파킨슨병 치료제 '아질렉트'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신경 질환으로 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라사길린 메실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질렉트는 어떤 신경세포에서 내인성 및 외인성 도파민이 대사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뇌 흑질 내 도파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도파민 효력 증강 효과를 통해 특발성 파킨슨병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오필수 한국룬드벡 사장은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15만 명 정도지만 질환이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해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아질렉트가 파킨슨병 증상을 개선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질렉트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55개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일은 하나마나
살은 빼나마나
소개팅은 보나마나
야! 오늘 그리스 어때?
일상에 지친 직장인을 위하여!
일요일 공연 4인 관람시
R석 264,000원 ▶ 17만원!
※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오픈리뷰 참고하세요!
Grease!
No.1 뮤지컬 그리스
Now Playing!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오픈리뷰 1588-5212 |제작| 00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새로 나온 책

경제·경영

그림 속 경제학

문소영/이다미디어

미술가들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 속에는 시대 상황이 녹아 있다. 저자는 미술사와 경제사를 나란히 놓고 미술 작품과 사회현상 사이의 긴밀한 연결 고리를 종합적으로 분석·설명하고 있다. "전함 테메레르" 속 산업혁명과 고전주의 경제학, "이삭 줍기"를 통해 보는 당대의 사회주의 논리 등 경제학과 미술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책이다.

브랜드 임팩트

전혜집/생각여행

브랜드의 역사와 시대의 흐름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브랜드를 소비하는 주체가 곧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한 다양한 브랜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이야기에는 시대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우리 삶의 애환도 녹아 있다.

인문

단숨에 정리되는 그리스철학 이야기

이한규/좋은날들

서구 학문과 사상의 근간을 형성한 그리스 철학에 대해 아는 것은 서양 인문학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 책은 철학의 탄생부터 헬레니즘 철학까지 1000년 이상 지속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삶과 그들의 철학을 읽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바로잡는 과정으로서의 철학을 강조하며 철학적 사고와 철학하는 삶의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운다.

자기계발

MIT 뇌과학박사가 어떻게 세계연설대회 1등이 되었나

다카스 고창 징그린/책물

말 솜씨가 약점이었던 저자가 뇌과학·심리학·철학 수사학을 총동원해 만든 '감정 소통법'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연설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의 노하우를 담았다. 저자는 '메시지는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기억된다. 매 말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인간의 심리와 뇌 작용을 이해함으로써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풍부한 사례와 세심한 실전 가이드를 담아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세계의 일자리

김준성/행간

청년 실업을 넘어 직장에서의 생존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항상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국내 취업 시장에서만 자신의 앞길을 모색하면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에 저자는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희망을 찾는 길을 알려준다.

사회

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강상구/나름북스

책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신자유주의 의 개념과 의미를 논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관철된 과정을 추적하며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취미·실용

일생에 한번은 수입차를 타자

류두홍·이주철/하나스북

이 책은 차종 소개부터 신차·중고차 구매 노하우, 사고처리 등 예비 수입차 오너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럭셔리스 수입차 종합관리 대행사를 운영하는 류동훈 씨와 실제 수입차 오너인 이주철 씨가 의기투합해 수입차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책을 펴냈다. 사치품이 아닌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선에서 수입차를 탈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가정·육아

엄마라서 행복해, 네 엄마라서 고마워

이석주/길손나무

이 책은 엄마의 사랑을 아이에게 제대로 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나친 기대와 욕심으로 몰아붙이는 사랑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못 미덥더라도 기다려주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설

리부트

에이미 틴테라/황금가지

죽음에서 되살아난 새로운 존재인 '리부트'들의 이야기를 다룬 디스토피아 로맨스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창궐해 황폐화된 미래의 텍사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긴박한 액션과 감동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확신'보다는 '지식'에 근거한 소통 필요

최근 우리 사회는 극심한 위기와 갈등, 분열을 겪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과 불통, 시스템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우리 사회 소통 부재의 원인에 대해 광신에 가까운 '확신'이라고 진단한다. 확신은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생각의 차이를 좁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과 관련된 의문에 대해 모두 다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기보다는 상대의 생각에 오류가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소통을 위해서는 내 확신에 대해 성찰하고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 50가지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있다. "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어야 하는가" "왜 대한민국은 졸지에 '삼류 국가'가 되었는가" "왜 '국민은 배곯아 죽고 공무원은 배 터져 죽는 사회'란 말이 나오나" 등 최근 이슈들까지 다룬 폭 넓은 질문들을 여러 분야의 수많은 학자들이 논의해온 이론들로 답하고자 했다. 다양한 학자들의 논문 구절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기 때문에 다소 읽기에 까다로울 수 있지만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다.

물론 이론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저자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론 만능주의'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이론은 사회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에 중요하다. 대신 이론에 대해서도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열린 자세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단초가 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강준만/인물과사상사

/탐혜진기자 bluna0404@metroseoul.co.kr

시속 2㎞쯤의 여행이 트레킹이다. 그렇게 느리게 걷는 것이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는 걸음을 떼면서도 속도감을 즐기려 한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에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빨리'는 ... 구별되지 못한다. ... 기다리고 있다. ... 느리게 걷기 위해 여행에 나서는 것도 ... 긴 호흡이 필요할 때다. - 트레킹으로 지구 한바퀴 (김유주/지식공간) 중 -

/김학철기자 kimc1504@

본질이 좀먹는 아수라장, 그 안에 내가 있다

화제의 책

알로하

윤고은/창비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윤고은이 날카롭고 묵직하게 돌아왔다.

저자는 책 '알로하'에 이효석문학상 수상작인 '해마, 날다'를 비롯해 총 9편의 작품을 담았다. 그것도 저자의 재기발랄한 상상력과 첨예한 세계 인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글로 말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인정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첨예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한다. 그런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 고투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가는 것이다.

더욱이 저자는 우리를 대변하는 소설 주인공들이 이런 상황에서 벌이는 치열한 싸움을 집중 조명한다. 자본의 짙은 그림자 아래 개체의 고유한 아우라가 모두 지워지는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고 가품이 진품의 자리를 가로채는 아수라장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장이다.

또 신랄하게 현실을 고발하기보다는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을 슬쩍 끼워두는 저자의 센스가 돋보인다. 자본주의의 허울과 본질이 좀먹는 사태를 직시하여 그것이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게 전시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셈이다.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안에 내가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tvN 갑동이 끝낸 **김민정**

"8세부터 연기 늘 즐겁다면 거짓말 그래도 운명 같아"

동그란 얼굴에 큰 눈 도톰한 입술 아직도 앳된 소녀같은 배우 김민정(33)이 어느덧 데뷔 25년차 배우가 됐다. 아역배우들이 흔히 거치는 방황의 시기 없이 차분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는 30대에 들어선 현재를 '재구성의 시기'라고 표현했다.

◆ **갑동이 그리고 오마리아**

지난 21일 tvN '갑동이'가 막을 내렸다. 김민정은 극중 살인마 갑동이로 인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입고 이중적 자아를 갖게 된 치료 감호소의 정신과 수련의 오마리아를 연기했다.

"끝나서 정말 시원해요. 마지막 회 촬영 들어갈 때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잘 했는가. 최고는 아니었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후회는 없어요."

스릴러에서 흔히 여자 주인공은 민폐를 끼치거나 캐릭터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중성을 지닌 오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 캐릭터에 대한 질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아쉬운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영상에 나와서 제 목소리와 눈빛으로 제 생각을 표현할 때와 인터뷰해서 글로만 나갈 때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아요."

데뷔 25년차 베테랑다운 모습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마리아의 이중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가발도 쓰고 진한 스모키 눈화장을 하는 모습이 시청자에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혹시 부족할까봐. 마리아가 가진 이중성이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그런 부분을 풀어 나가는 게 내 숙제였다. 하지만 '갑동이'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을 다 설명하기엔 여러모로 어려웠다. 태오(이준)를 찾아갈 때 왜 마리아가 가발을 쓰고 가는지 내가 봐도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시청자가 '마리아가 왜 저러는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tvN '갑동이'서 이중적인 모습의 오마리아를 연기한 김민정. /CJ E&M

◆ **김민정의 재구성**

오마리아는 12살 때 '갑동이'에게 친구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는 "나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리아의 이중성을 이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큰 스캔들이나 파격적인 행보 없이 순탄하게 배우 생활을 이어온 그에게도 트라우마는 있었다.

"자아를 형성하기 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 지를 너무 신경 써서 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학창시절엔 제가 없었어요. 혹시나 나쁜 소리라도 들을까 온갖 규칙은 다 지켰죠. 20대 초반까진 제가 바른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힘든 시기를 거쳐 지금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들어섰어요."

그의 트라우마는 아역배우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연기생활에 후회는 없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하게 된 건 운명이에요. 아역배우들을 보면 어머니가 원해서 온 경우가 99%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절 배우로 만들겠다는 욕심도 딱히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열 살 때 혼자 불 꺼진 세트장에서 30분 전부터 감정을 잡았어요. 누가 날 억지로 이끈 것도 아닌데 말이죠. 늘 즐거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힘들 때도 관두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운명 같아요."

'연기는 내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안 순간 멘붕(충격)에 빠졌고 방황까진 아니어도 일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었죠. 연기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당시엔 남 탓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든 일들이 다 제 안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덕분에 좀 편해졌어요. 연기는 제가 사랑하는 일인 건 분명해요. 다음엔 밝은 캐릭터로 인사 드릴게요."

/김지민기자 language@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섹시 경쟁 '작정한 19금'

뮤직비디오·안무 잇단 선정성 논란 여자 가수 넘어 남자 가수까지 확산

'언터쳐블' '테이크아웃' 뮤직비디오 섹시 경쟁 합류

가요계 섹시 경쟁이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걸그룹 걸스데이가 섹시 콘셉트를 가미한 '썸씽'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대세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AOA를 비롯해 달샤벳, 레인보우블랙 등 걸그룹이 섹시 퍼포먼스를 펼치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과감하지만 절제된 섹시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가요계는 뮤직비디오에 이어 안무까지 '19금' 판정을 받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섹시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우에서 가수로 활동 영역을 넓힌 한수아는 '혈육이' 뮤직비디오에서 '비키니 군무'를 등장시켜 주목받았다. 당시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완벽한 비율의 모델과 대한민국 평균 신장의 배우 15명이 섞여 비키니 차림으로 아찔한 군무를 선보였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19금 판정을 받았지만 대중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성 가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 2일 공개한 그룹 유키스의 '끼부리지마' 뮤직비디오는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파격적인 수위로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된 것이다.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유키스의 상체 노출신과 여성과의 아찔한 스킨십, 속옷 노출 등 높은 수위로 19금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끼부리지마'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유키스는 아찔한 커플 댄스와 도발적이고 과격적인 안무로 방송 출연에 문제가 발생하자 긴급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키스의 19금 판정은 되레 대중에게 컴백 소식을 알리는데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감성 힙합 듀오 언터쳐블도 섹시 마케팅 대열에 합류했다. 신곡 '테이크아웃'의 뮤직비디오는 최근 진행된 심의에서 솔직하고 거침없는 영상으로 19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19금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인터넷 환경 상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터쳐블의 '테이크아웃' 뮤직비디오는 24일 TS엔터테인먼트 측 공식 채널과 언터쳐블의 공식 팬 카페를 통해 공개됐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헬스장, 카페, 바 등 오가며 한 여자에게 발랄한 구애를 펼치는 언터쳐블의 모습이 가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선정적이기 보단 여름에 맞게 시원하고 섹시한 영상으로 구성됐다"며 "싱글 앨범에서 언터쳐블이 그동안 선보였던 모습과 사뭇 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우기자 ysw@metroseoul.co.kr

소지섭 새 싱글 '18 이어스' /51K(피프티원케이)

배우 소지섭 또 힙합가수로

자작 세 번째 싱글 '18 이어스' 발표

배우 소지섭이 1년 6개월 만에 다시 가수로 돌아왔다.

소지섭은 24일 정오 세 번째 싱글 '18 이어스'를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다.

'18 이어스'는 데뷔 18년차 배우 소지섭이 그동안 말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이다. 화려해 보이는 배우로서의 삶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담은 '18 이어스'는 감각적인 비트에 소지섭의 거친 래핑이 돋보이는 곡으로 가수 샛별의 후렴구가 노래의 쓸쓸한 감성을 극대화한다.

수록곡 '보이스 고' '환상 속의 그대'는 지난해 발매한 싱글 '6시 운동장'에서 호흡을 맞췄던 힙합 그룹 소울 다이브와 다시 한 번 작업했다. '보이스 고'는 밝고 경쾌한 힙합 넘버로 꿈 많던 소년 시절을 회상하는 가사가 특징이다. '환상 속의 그대'는 소지섭, 소울 다이브의 넋업샨, 지토, 디테오 등 네 남자가 바라는 이상형의 여자를 그린 곡으로 자극적이고 섹시한 노랫말이 귀를 사로잡는다.

소지섭은 28~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첫 팬 미팅 '소지섭 퍼스트 아시아 투어-헬로 비브 린 인 타이완'을 개최한다.

/김지민 기자

걸그룹 멤버 탈퇴·영입 '변신중'

카라 '카라프로젝트' 위기 탈출 노려 나인뮤지스 '졸업 영입' 자연스러워

걸그룹 카라와 나인뮤지스(사진)가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O.T와 젝스키스, 핑클, S.E.S 등 1세대 아이돌들은 멤버 중에 한명이라도 탈퇴할 경우 그룹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닛이 생기거나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팀을 탈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덕분에 해당 그룹은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고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멤버 교체에 나선 카라는 지난 1월 15일 니콜에 이어 4월 팀 막내 강지영까지 탈퇴를 선언했다. 한국을 넘어 일본에까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카라의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다. 그러나 카라는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 3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 영입 계획을 세웠다. 덕분에 카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 쏠리고 있다. 새로운 멤버를 뽑기 위해 진행중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연일 화제다.

또 라나, 재경, 비니, 세라, 이샘, 이유애린, 은지, 혜미, 민하 9인조로 데뷔했던 나인뮤지스는 2014년 이샘과 은지가 탈퇴해 7인조로 축소됐다. 여기에 멤버 세라도 그룹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서 현재 나인뮤지스는 6인조로 줄어들었다.

나인뮤지스 소속사 스타제국은 "세라는 계약이 만료되어 나인뮤지스에서 떠나게 됐다"며 "새 멤버 영입으로 팀을 재정비한 뒤 8월 초에 컴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성호기자

루커스 당돌한 데뷔 '주목'

최장신 그룹 기본기·외모 자신감 7월 출격

신예 남성 5인조 아이돌 그룹 루커스(사진)가 초여름 가요시장에 겁없이 뛰어들었다. 이를 두고 가요 관계자들의 호기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급 남녀 아이돌 가수의 신곡이 몰리는 여름 시장은 신인들이 피해가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달 4일 데뷔곡 '기가 막혀' 발표를 예고하며 당차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해는 브라질 월드컵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비스트, 빅스, 제국의 아이들, 보이프렌드 등 여러 아이돌 그룹이 한 번에 쏟아져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들이 과감히 여름 데뷔를 선택한 이유는 탄탄한 기본기와 우월한 비주얼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20대 초반인 멤버 대부분은 10대 때부터 연습생 시절을 겪으며 약 7년 동안 기본기를 갈고 닦았다.

모델돌로 불리는 루커스는 리더 제이원(23·186㎝)을 비롯해 동현(23·184㎝), 조에(21·183㎝), 경진(22·181㎝), 진원(19·188㎝)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평균 신장은 184.4㎝로 국내 남성 아이돌 그룹 중 최장신이다.

루커스의 소속사 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진출과 드라마 출연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미 예약해 놓은 상태다. 쏟아지고 있는 각계각층의 러브콜을 예정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데뷔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팬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겨울연가' '해를 품은 달' 등을 비롯해 이승철, 싸이, 이정현 등의 음반을 제작했다.

/유순호기자 sunoh@

'광고킹' 당황한 조윤호

CF 신인스타상 수상

개그맨 조윤호(36·사진)가 CF 스타로 떠올랐다.

조윤호의 소속사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조윤호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2014 MTN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CF 신인스타상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윤호는 올해 '개그콘서트'의 '선죽거리 잔혹사' 코너에서 "당황하지 않고, 끝~"이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이동통신사, 라면, 게임, 제습기, 섬유 유연제, 아웃도어, 남성복 광고까지 두루 섭렵하며 CF의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CF 신인스타상 수상 소식에 조윤호는 "올해 너무 꿈만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꿈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며 "큰 사랑과 관심 감사하며 항상 제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개그맨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민 기자 languid@

황보라 11년 만에 새둥지

배우 황보라(31·사진)가 새로운 소속사에 둥지를 틀었다.

판타지오는 "데뷔 이후 한 소속사에서 오랜 시간 몸담았던 황보라는 배우로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새 소속사를 택했다"고 24일 밝혔다. 판타지오에는 하정우·정경호·성유리·김성균 등 30여 명의 배우가 소속돼 있다.

황보라는 "십여 년 만에 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 기분이다. 기쁘고 설레면서도 떨린다. 늘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임자게 다시 시작하려 하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03년 SBS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황보라는 TV 광고로 얼굴을 먼저 알렸다. '웃어요 엄마' '위험한 여자' '딸이 '영화 좋지아니한가' '라디오 데이즈' 등이 그가 출연한 작품이다. 최근 MBC '왕궁한 돌싱녀'에 출연했다.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공포영화 '내비게이션'에서 주연을 맡았다.

/김지민 기자

더 거대 더 화려 비주얼의 '끝'

film review

자루할 틈 없는 164분… 전작과도 차별

■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25일 개봉될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트랜스포머4)는 영화에서 가능한 볼거리의 '끝'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개봉된 '트랜스포머' 시리즈 세 편은 물론 기존 다른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큰 스케일과 화려한 액션, 정교한 컴퓨터그래픽(CG)을 자랑한다.

'트랜스포머4'는 시카고를 무대로 펼쳐진 전작의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마지막 결전으로부터 5년 뒤 이야기를 그렸다. 이전 시리즈가 외계 로봇과 소년의 모험담에 그쳤다면 새 시리즈는 이야기를 인간과 외계 로봇의 대결로 확장했다.

정부는 시카고 결전으로 도시가 황폐해지자 인류의 안보를 이유로 외계 로봇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이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기술로 직접 새로운 로봇을 창조하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고물 트럭의 모습으로 숨어있던 오토봇의 수장 옵티머스 프라임이 발명가 케이드 예거(마크 월버그)의 도움으로 깨어난다. 이 예거와 그의 딸 테사(니콜라 펠츠), 오토봇은 힘을 합쳐 여러 악당들에 맞서 싸운다.

작정하고 볼거리에 올인 한 '트랜스포머4'는 거대 로봇 군단의 전투를 박시스와 홍콩 베이징을 무대로 스크린에 가득 펼쳐낸다. 특히 강력한 힘을 지닌 로봇들을 새로 등장시켜 눈길을 끈다.

인간이 만든 로봇인 갈바트론, 도시를 덮을 정도로 거대한 우주선인 나이트쉽, 창조주의 명령을 받는 외계 로봇인 락다운이 차례로 등장해 오토봇과 대결하며 도시를 초토화시킨다. 164분의 긴 상영시간이 지루해질 즈음엔 거대 공룡 로봇인 다이노봇 군단이 화면을 꽉 채운다.

물론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과 조력자 범블비, 쌍권총 크로스헤어, 마초 하운드, 검사 드리프트 등 각양각색의 오토봇이 선보이는 현란한 액션도 볼거리다.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특유의 장면은 여전히 쏴랏한 재미를 준다.

그러나 너무 많은 로봇을 한 번에 보여주려다 보니 이야기는 허술하고 화면은 산만하다. 기존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큰 재미 중 하나인 오토봇 각각의 인간적인 매력도 살리지 못했다. 옵티머스 프라임만 시종일관 '의리'를 강조할 뿐이다.

이번 시리즈는 로봇뿐 아니라 등장인물도 확 바꿨다. 주인공으로 3편까지 등장한 샤이아 라보프 대신 마크 월버그가 새로 투입돼 부성애가 깃든 액션 연기를 펼친다. 1~3편 시리즈에서 섹시한 매력을 뽐냈던 여주인공은 이번엔 니콜라 펠츠가 맡았다.

중화권 스타인 판빙빙은 극이 홍콩으로 배경을 옮긴 시점부터 비중 있게 등장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4'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기대를 모았던 슈퍼주니어 출신 한경은 비명 한 번 지르고 금세 퇴장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1·2·3편을 합쳐 국내에서 2272만 관객을 모았다. 새 시리즈의 흥행 성적에 영화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

엇갈린 안방 판도 뒤집힐까?

장르 대결 '닥터' '트로트의' 연출 대결 '너포위' '조선총잡이'

주중 드라마 경쟁이 새 판을 짤 일이다.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과 수목극 '조선총잡이'가 이번주 첫 방송되면서 현재 1위인 SBS '닥터이방인' '너희들은 포위됐다'(이하 '너포위')와 겨루게 됐다. 새 출발한 두 작품은 각각 코믹과 퓨전 사극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S2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정은지 지현우

KBS2 수목드라마 '조선 총잡이' 이준기 남상미

◆ 방향 찾은 '닥터 이방인' vs 명랑 코믹 '트로트의 연인'

월화드라마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인다. 종영까지 4회 남은 '닥터이방인'은 메디컬 첩보 멜로의 복잡 장르다. 반면 '트로트의 연인'은 명랑 코믹물이다.

'닥터 이방인'은 현재 박훈(이종석)과 한재준(박해진)의 내통령 심장 수술 집도와 선점을 둘러싼 대결에 초점을 맞췄다. 박훈과 송재희(진세연)의 멜로에 치우치면서 탄력 잃은 작품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제목이 담고 있는 '이방인'의 의미도 드러난다. 방향을 찾은 '닥터 이방인'이 뒷심을 발휘할 지 기대된다.

'트로트의 연인'은 개성 있는 캐릭터로 안방에 청량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배경 음악인 트로트와 지현우·정은지·신성록의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가 어우러져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스캔들로 추락한 스타 장준현을 연기하는 지현우는 "행복 드라마다"며 "요즘 드라마 추세가 복수·살인 쪽이 많은데 '트로트의 연인'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다"고 작품의 강점을 말한다.

◆ 막강 라인업 '너포위' '조선 총잡이' 전개가 관건

수목드라마 '너포위'와 '조선총잡이'엔 막강한 연기자들이 출연한다. 연출과 극본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

'너포위'는 종영을 8회 남겨두고 내용은 악화하면서 산만한 캐릭터와 구성이 극의 안정감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선 총잡이'는 이준기와 남상미의 재회로 화제다. 두 사람은 2007년 MBC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연기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두꺼운 매니아층을 형성했다.

실제 이준기와 남상미는 서로를 "오누이와 연인 같다"고 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다고 했다. 작품은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다.

/전효진 기자

네이마르 브라질 '신성'에서 '태양'으로…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카메룬전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원맨쇼를 펼쳤다 /AP 연합뉴스

브라질 축구계의 신성 네이마르가 월드컵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카메룬전에서 네이마르가 보여준 탁월한 위치선정과 볼 컨트롤 능력은 메시와 호날두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넘어설 정도다.

브라질이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나시오날 데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카메룬과의 A조 예선 3차전에서 4-1로 대승을 거두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삼바군단 브라질 대표팀의 월드컵 100번째 경기로 치러진 카메룬전은 새로운 황제 네이마르를 위한 무대였다.

'신성' '차세대'라는 수식어를 넘어 '태양'으로 불러도 좋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4개의 슈팅을 4개의 유효슈팅으로 연결해 2골을 뽑아낸 결정력부터 훈련장에서도 보기 힘든 화려한 개인기까지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전반 2골을 넣으며 카메룬의 사기를 꺾은 네이마르는 후반에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팀의 전의를 상실케 했다. 마치 앞마당에서 볼을 가지고 놀 때 구사하는 기술을 월드컵 무대에서 펼친 것이다. 축구전설 펠레와 마라도나의 현역시절 모습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생애 첫 월드컵에서 당당히 4골을 넣은 네이마르는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크로아티아와의 개막전에서 2골을 뽑아냈던 네이마르는 2골을 더해 총 4골로 대회 득점 선두에 나섰다. 현 시대 최고의 스타 메시와 호날두를 넘어서고 있다.

메시와 호날두는 모두 2006년 독일월드컵을 통해 처음 입문했다. 하지만 이들은 2006 독일 월드컵과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에 출전해 통산 3골(메시)-2골(호날두)에 그치고 있다. 월드컵 성적만 놓고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다.

브라질과 독일이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만큼 네이마르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 네이마르가 브라질 축구의 '태양'으로 급부상하는 건 시간문제다.

/장의성기자 ysw@metroseoul.co.kr

네덜란드의 아리언 로번이 칠레 수비진을 따돌리며 빠르게 돌파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총알 탄 사나이' 로번 V 질주

'초고속 축구' 네덜란드 우승후보 급부상

'총알 탄 사나이' 아리언 로번이 이끄는 네덜란드가 초고속 축구를 앞세워 승승장구하고 있다.

로번이 주장으로 나선 네덜란드는 24일 브라질 상파울루 코린티앙스 경기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칠레를 2-0으로 꺾었다. 간판 골잡이 로빈 판 페르시가 1·2차전 경고 누적으로 결장해 상대 수비는 로번에게 집중됐지만 로번은 특유의 빠른 발로 칠레 수비진을 휘저었다.

레로이 페르의 선제골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네덜란드는 칠레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 기회를 맞았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로번은 상대 수비를 완전히 따돌리고 페널티지역까지 돌파했고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멤피스 데파이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해 팀의 두 번째 골을 도왔다.

네덜란드는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과의 첫 경기에서 5점을 몰아넣고, 호주전에서 3골을 넣은데 이어 이날도 난적 칠레에 2점을 꽂으며 깔끔한 공격 축구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로번은 1차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을 당시 센터서클에서 골문 앞까지 쫘고 시속 37㎞의 속도로 뛰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로 인정받았다. 네덜란드는 로번의 거침없는 돌파와 판 페르시의 결정력 높은 공격을 앞세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정수호기자 euro@

코트디부아르 16강 보너스 2배

월드컵 이모저모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시 명예는 물론 물질적인 혜택도 늘어난다.

24일 코트디부아르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그리스와의 C조 3차전에서 이길 경우 승리 보너스를 2배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대표선수들에게 전한 것이다. 코트디부아르는 1승1패 승점 3으로 콜롬비아(승점 6)에 이어 2위이며 25일 벌리는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이기면 16강 진출이 확정된다.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은 현재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2만4400 달러(약 25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으며 3차전에서 이기면 5만 달러 가까이 챙길 수 있다.

◆ 악동 수아레스 맛보세요

영국에서 월드컵패전 분풀이용 피자가 등장했다. 온라인 테이크아웃 음식서비스 업체인 저스트 잇어 우루과이 월드컵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와 얼굴이 그려진 피자를 출시했다.

칠리와 블랙 올리브, 피망, 베이컨 등으로 그려낸 수아레스는 피자에서 힘차게 '골~'을 외치고 있다. 피자를 주문한 사람은 피자를 먹으면서 얄미운(?) 수아레스를 살짝 깨물 수 있다. 영국 편으로선 수아레스를 씹어 먹으며 아쉬운 패배에 분풀이를 할 수 있는 피자인 셈이다.

20일 열린 브라질월드컵 D조 조별예선 영국-우루과이전에서 수아레스는 2골을 넣어 2-1 우루과이 승리의 선인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피자는 오히려 님미 우루과이에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다.

◆ '최악 오심' 오리어리 퇴출?

월드컵에 첫 출전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6강 진출 꿈을 단 한 번의 오심으로 날려버린 피터 오리어리 주심이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영국 일간지 미러와 인디펜던트 등은 "나이지리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기를 주관한 오리어리 주심을 월드컵에서 퇴출시키자는 온라인 청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2만여 명이 서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출신 오리어리 주심이 이처럼 축구팬들의 질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지난 22일 나이지리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경기에서 나온 오심 때문이다. 경기 후 오리어리 주심은 나이지리아의 빈센트 엔예마 골키퍼와 웃으며 포옹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장성윤기자

코트디부아르와 콜롬비아 선수가 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이 24일 오전 브라질 이구아수에 차려진 훈련 캠프에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낱희망 기적으로 바꾸자

대표팀 훈련 재개 홍명보 분위기 메이커 자청…이근호 "승리 자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훈련을 재개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서는 대표팀은 24일 브라질 이구아수에 차려진 캠프에서 회복 훈련을 했다. 전날 알제리와의 H조 2차전에서 쌓인 피로를 푸는 프로그램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날 참패와 희박해진 16강 진출 가능성 때문에 침울해 있었다. 박주영, 이청용, 손흥민, 구자철, 김영권, 정성룡 등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말 없이 훈련에만 집중했다.

팀의 저조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나선 이는 홍명보 감독이었다. 홍 감독은 별도의 그라운드 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훈련을 시작하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선수들과 섞여 볼 뺏기와 미니게임을 했다. 처져 있는 선수들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직접 몸을 부딪치며 웃음을 보였다.

홍 감독이 이구아수 베이스캠프에서 선수들과 어울려 볼 뺏기와 미니게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위기 전환이 어떤 전술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또 이날 회복훈련에서 선수들이 패배의 우울함에서 벗어나 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취재진에게 모두 공개했다.

선발 출전자와 벤치의 조로 훈련에 참가한 이근호, 김신욱, 지동원, 박주호 등 백업요원도 사기를 끌어올렸다. 좋은 슈팅이 나오면 탄성이 쏟아지고 간혹 웃음소리도 들리는 등 선발 출전자보다 활력을 띠었다.

러시아전 선제골과 알제리전 도움을 기록하며 홍명보호의 확실한 조커로 떠오른 이근호는 "벨기에를 충분히 이길 것"이라며 강한 결의를 보였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최대한 집중해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며 "준비가 중요하다. 벨기에가 강팀이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신욱도 굳은 각오를 밝혔다. 그는 "우리 선수 중에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호와 김신욱은 2012년 K리그 울산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제패를 이끌며 탁월한 호흡을 자랑했다. 스트라이커 박주영이 부진한 까닭에 이들 콤비가 27일 벨기에와의 3차전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 선수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곽태휘는 "생각을 바꾸면 정신력이 바뀔 수 있다"며 "상황이 상황이고 기분도 좋지 않지만 우리 선수들이 분위기를 반드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석조의 베이스볼 카페

에이스는 무엇인가

지난 주말 프로야구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1~22일 KIA와 두산의 잠실 경기가 연속으로 6회 강우콜드게임으로 끝났다. 사상 처음이었다. 비의 혜택을 받은 쪽은 KIA였다. 5회까지 리드를 잡은 덕택에 연승을 거두었다. 주말 3연전을 모두 잡았고 시즌 첫 4연승을 달렸다.

비의 혜택이었지만 3연전에서 KIA의 경기내용은 탄탄했다. 모처럼 4경기에서 선수들은 빈틈없는 경기를 했다.

여기에서 에이스 양현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현종은 지난 19일 넥센과의 광주경기에 선발로 나섰으나 갑자 타구에 왼쪽 허벅지를 맞고 쓰러졌다. 워낙 강하게 맞아 통증은 심했고 무릎은 욱신거렸다. 다들 경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대로 강판해도 탓할 사람이 없었는데도 양현종은 볼을 던지겠다고 고집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7회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그것도 단 1실점으로 호투했다. 이런 양현종의 근성은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날 3-1로 승리하며 3연패 위기를 벗어났다.

양현종 진짜 효과는 주말경기에 나타났다. 데니스 홀튼, 김병현, 임준섭 등 선발투수들이 모두 호투하며 승리를 따냈다. 김병현은 간절함이 얼굴에 가득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이적 첫 승을 따냈다. 40일 만에 승리를 따낸 홀튼이나 4승을 올린 임준섭도 마찬가지였다. 타자들은 찬스에서는 상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리더는 팀을 바꾼다. 아직 젊은 양현종은 기막부터 어깨에는 무거운 에이스의 짐을 짊어졌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진정한 에이스의 길을 가고 있다. 잘나가는 팀에는 훌륭한 리더가 많다. 삼성이 그렇고 NC도 마찬가지다. 신뢰를 받는 리더는 한곳으로 뭉치게 만든다. 이런 리더는 비단 야구단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월드컵 프리뷰

누구도 16강 진출을 확정하지 못한 E조가 마지막 화력전을 펼친다.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한 아르헨티나는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우승전력을 점검한다.

아르헨티나·프랑스 우승전력 점검

◆ 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오전 1시 베이라 히우 주경기장)

나이지리아는 최소한 비겨도 16강에 갈 수 있지만 상대가 아르헨티나라는 사실이 절망적이다. 나이지리아는 승점 4를 기록해 아르헨티나(승점 6)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승점 1만 더해도 3위인 이란(승점 1)을 꺾을 수 있어 마지막 전력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나이지리아에게는 빅터 모지스, 고드프리 오보이보나, 루번 가브리엘의 출전이 불투명한 것도 악재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이란(오전 1시 폰치 노바 경기장)

이란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로 16강행 마지막 불씨를 살린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아르헨티나가 나이지리아를 꺾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란이 1-0으로 승리하고, 나이지리아가 0-1로 패한다면 이란과 나이지리아는 승점, 골 득실, 다득점에서도 같고 0-0으로 비겨 승자승 원칙으로도 가릴 수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추첨으로 16강 진출국이 결정된다.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우승전력 점검에 나설 아르헨티나 /AP 연합뉴스

◆온두라스-스위스(오전 5시 아마조니아 경기장)

승점 3(골 득실 -2)을 기록 중인 스위스는 프랑스(승점 6 골 득실 +6), 에콰도르(승점 3 골 득실 0)에 이어 E조 3위를 달리고 있다.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어렵다. 온두라스(승점 0·골 득실 -4)를 꺾고 프랑스가 에콰도르를 이겨줘야 16강에 오를 수 있다. 온두라스가 16강에 오르려면 스위스를 큰 점수차로 물리치고 에콰도르가 프랑스에 져야만 한다.

◆에콰도르-프랑스(오전 5시 마라카낭 주경기장)

프랑스가 3전 전승으로 우승을 향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선 2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며 1998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우승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1위로 조별리그를 마쳐야 F조 1위가 유력한 아르헨티나를 피할 수 있다. 프랑스와 에콰도르의 대표 스트라이커 카림 벤제마와 엔네르 발렌시아의 골 대결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3골을 기록 중이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4일)

■ 잠실

팀	1-3	4-6	7-9	계
NC	020	310	000	6
LG	000	000	000	0

승리투수 = 찰리 [illegible] △ 패전투수 = [illegible] △ 홈런 = [illegible] (NC)

■ 대전

팀	1-3	4-6	7-9	계
롯데	002	110	100	5
한화	200	200	002	6

승리투수 = [illegible] △ 패전투수 = [illegible] △ 홈런 = [illegible] (한화)

■ 대구

팀	1-3	4-6	7-9	계
넥센	032	000	001	6
삼성	000	020	102	5

승리투수 = [illegible] △ 세이브투수 = 손승락 [illegible] △ 패전투수 = [illegible]

■ 광주

팀	1-3	4-6	7-9	계
SK	210	001	800	12
KIA	100	200	010	4

승리투수 = [illegible] △ 패전투수 = [illegible] △ 홈런 = [illegible] (SK) [illegible] (KIA)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